



대한해운

중기전략 비전 2010 발표

대한해운(대표 이진방)은 5월23일 2010년 매출 2조원, 운영선대 270척(지배선대 72척, 용선선대 192척) 확보한다는 내용의 중기전략을 담은 '대한해운 비전 2010'을 발표했다.

중기전략 '대한해운 비전 2010'에 따르면, 꾸준한 창의와 노력으로 기업을 건전하게 성장시켜 사회에 공헌하고, 책임과 윤리 경영을 통해 주주와 고객, 종업원이 만족하는 초우량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경영 기본이념으로 설정했다.

특히, 대한해운은 이러한 경영이념을 통해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 전문 수송선사로 거듭 나고,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진입과 함께 1인당 영업이익 1위, 1인당 순이익 1위의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대한해운은 2010년 매출을 현재 1조억원대에서 2조억원대로 확대하는 한편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을 10%대로 유지하고 운용선대도 현재 지배선대 30척, 용선선대 88척을 각각 78척과 192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해운은 전용선대 확장을 통한 사업 안정성 구축과 함께 LNG/유조선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 건화물선 부문 지배선대 확충으로 영업경쟁력 강화 등 사업부문 다각화를 통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3개 본부, 14개 팀, 1개 국내지점, 2개 국내사무소, 2개 해외 사무소(육상직원 118명, 해상직원 420명)의 현 조직을 2010년에는 5개 본부, 25개 팀, 1개 국내지점, 2개 국내사무소, 4개 해외 사무소, 2개 해외 법인(육상직원 190명, 해상직원 1,288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

외의 경우 싱가포르와 런던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동남아해운

이석희 사장 취임

동남아해운 이석희 신입사장의 취임식이 6월 1일 오전 9시 동남아해운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석희 대표이사 사장은 취임사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해운시황 속에 전통 있는 동남아해운의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사상 초유의 고유가 및 환율하락 등 대외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임직원들의 저력과 의지가 확고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한다면 동남아지역 전문선사로서의 위상은 물론 세계적인 물류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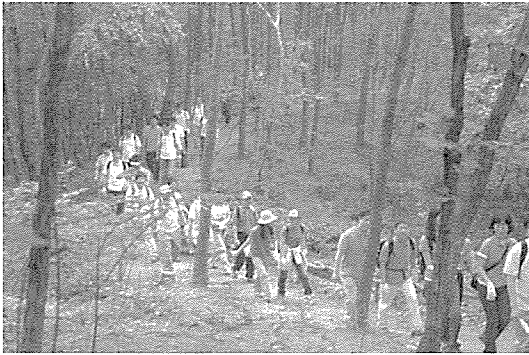
조양상선 및 현대상선에서 재직할 바 있는 이석희 사장은 그동안 해운시장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원가·서비스·직원 경쟁력 제고, 수익성 중심 경영 및 업적·성과 위주의 인사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임직원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신념을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인을 비롯한 간부들이 먼저 솔선수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해운

전사 패기훈련 실시

SK해운(대표 이정화)은 지난 5월19일 이정화 사장을 비롯한 본사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39차 춘계 전사 패기훈련을 실시했다.



춘계 패기훈련의 경우 등산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청계산을 등반했다. 이수봉 등산로를 시작지점으로 하고 매통을 고지로 한 등산로는 사무실을 벗어난 임직원들이 새봄을 맞아 심신을 다지고 원기를 충전하기에 적합한 코스였다.

동사는 이번 패기훈련을 통하여 Top Management 중심의 전임직원 Teamwork 강화 기회를 마련하고, 임직원 동적요소 수준 제고 및 체력단련 기회를 제공하여, 회사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임직원들을 격려하였다.

행사 후 만찬과 함께 실시된 단합의 시간에선 무엇보다 올 신입사원들의 장기자랑인 차력시범이 하이라이트였다. 예상치 못한 기발하고 재치 있는 차력시범은 전 임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SK맨으로서의 넘치는 패기를 잘 표현하였다는 주위의 평가를 받았다.

썸브라운티그룹 그룹명 'C&그룹'으로 변경

진도, 진도F&, 우방, 세양선박, 썸브라운티해운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썸브라운티그룹(회장 임병석)이 그룹명을 'C&(씨앤)그룹'(www.cngr.co.kr)

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썸브라운티그룹은 향후 각 계열사별로 사명 변경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는 7월 말께 주주총회 및 관련 제반사항을 완료하고 그룹 CI 선포식을 갖는 등 새로운 도약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썸브라운티그룹은 이번 그룹명 변경에 대해 해운분야로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제조, 건설, 레저에 이르는 종합된 그룹을 모습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그룹명을 도입케 되었다고 밝혔다.

썸브라운티그룹의 새이름인 'C&그룹'의 C는 Credibility(신뢰), Creative(창조), Challenge(도전), Change(변화), Customer(고객지향), SEA(발음 씨: 바다), SEE(발음 씨: 통찰력)를 뜻하며, "&"은 And, More, Continue, Unique으로 확장과 발전이라는 뜻을 담은 무한한 발전하는 미래를 의미하고 있다.

즉 'C&'은 썸브라운티그룹의 근원인 바다(SEA)를 바탕으로, 미래지향가치인 미래에 통찰력(SEE)을 갖춘, 미래지향성, 혁신성, 도전성, 창조성을 갖춘 그룹으로 성장발전코자 하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썸브라운티그룹은 설명했다.

(주)한진

서비스 강사 양성

(주)한진(대표 이원영)은 택배 등 전 물류사업의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강사 양성에 나섰다라고 최근 밝혔다.

한진은 30일 '서비스 닥터(SD) 양성계획'을 발표하고, 1차로 교육을 수료한 20명의 현장 직원에게 서비스 닥터를 상징하는 'SD배지'를 수여했

다고 전했다.

회사측은 이번 SD 운영의 특징은 다양한 직종과 광범위한 사업장을 갖고 있는 물류기업의 특성상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서비스 자질을 강사 수준으로 높여 평상시에도 서비스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은 SD 운영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객 불만 사항을 즉각 처리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개인 및 기업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진 권선영 인력개발팀 차장은 "SD들의 활동에 따라 서비스 교육을 상시 운영하는 장점이 있다"며, 직원들의 서비스 강사화로 단시간 내에 서비스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은 선발된 SD들의 활성화를 위해 사내 교육 강사로 활동할 경우 소정의 활동비(강의료)를 지급받게 되며, 인사관리에도 활동 실적을 반영해 준다는 계획이다.

GS칼텍스

서로 하나되기 나눔행사

GS칼텍스(대표 : 허동수 회장)는 5월19일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아 공장이 있는 여수와 연구소가 있는 대전에서 각각 정신지체 장애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서로 하나되기'라는 뜻 깊은 나눔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두 지역의 장애아동 약 600명과 함께 GS칼텍스 임직원 및 가족 30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가운데 대전 중앙기술연구소와 여수 여도중학교 체육관에서 각각 개최됐다.

이날 나눔의 자리에는 대전의 사회복지법인 천



성원 내 온달의 집 정신지체아동 240여명과 여수의 장애인 특수학교인 여명학교 및 일반학교 장애우 특수학급 재학생 350여명이 초대됐다.

자원봉사자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정신지체 아동들과 축구공 굴리기, 줄다리기, 조별 장기자랑, 풍선아트 등 다채로운 게임과 공연 등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수에서는 '응원한마당, 미션장애물통과, 돌이 함께 축구를 등' 명랑경기가 이뤄졌으며, 대전에서는 자원봉사자 댄스, 음료수 마시기, 난타, 태권무 등 공연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기태 GS칼텍스 자원봉사팀장 겸 변화지원부 문장은 "이번 행사는 창립기념일에 임직원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가꾸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영상선

군산항 기항

태영상선(대표 박영안)은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경인, 충청 및 호남지역 하주들의 물류비용

절감과 대하주 서비스 향상을 위해 6월12일부터 천경해운(대표 김지수)과 제휴하여 부산-도쿄항로의 투입선박을 군산항에 기항시켜 1항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입선박은 총 3척(M/V RYOGA, SKY LOVE, KANTAMA)으로 한국발 일본착의 경우 인천(토)-군산(월)-부산(화)-도쿄, 요코하마, 치바(금) 등이며, 일본발 한국착의 경우 시미즈(일)-도쿄, 요코하마(월)-나고야(화)-부산(목)-인천(토)-군산(월) 순으로 기항한다.

태영상선은 이와관련, 이번에 기항항 외에 일본 및 중국 화물은 부산에서 T/S를 통해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광양 및 부산에서 선적되었던 화물의 물류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진해운

벨기에 앤트워프 터미널 개장

한진해운(대표 박정원)은 5월23일 일본 케이라인, 대만 양밍라인과 합작으로 벨기에 앤트워프항에 설립한 컨테이너 전용터미널(AIT, Antwerp International Terminal) 개장식 행사를 가졌다.

AIT는 4만1,000평의 면적에, 3기의 갠트리 크레인을 포함하여 21기의 터미널 하역 장비를 보유, 연간 약 50만TEU의 물량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날 개장식에는 앤트워프 항만청장, 벨기에 환경부 장관, 한진해운 최건식 상무 등 합작 3사 및 PSA 대표를 비롯하여, 약 400여명의 항만 관련 인사와 화주들이 참석했다.

Baron Delwaide 앤트워프 항만청장은 기념사에서, 공식 개장식 축하 인사와 함께 'AIT는 세

계 최초로 해운 제휴사들의 공동 투자를 통해 설립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앤트워프항에서 아시아 선사들의 전용 터미널 확보로, 향후 앤트워프항과 동아시아간 무역 운송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회사는 AIT의 운영으로 베네룩스를 포함한 유럽 지역의 터미널 운영 안정화를 꾀하고, 매년 성수기 화물 적체 현상을 보이는 유럽지역에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상선

미국서 최우수 물류기업 선정

현대상선(대표 노정익, hmm21.com)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가장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 해운 기업으로 공인받았다.

현대상선은 미국의 유통업체인 '타깃(Target Corporation)'사로부터 서비스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근 미국 미네애플리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의 최우수 물류기업(Carrier of the Year)'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타깃사'는 2006년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29위를 차지한 미국의 대표적 유통기업으로, 매년 해운기업 등 400여개 물류 관련 협력업체가 제공한 서비스를 심사해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정시성, 대고객 서비스 시스템 등 협력업체가 제공한 서비스 전반을 평가 기준으로 해 총 4개 등급으로 나눠 시상하는데, 현대상선은 이 중 최고등급인 '올해의 최우수 물류기업 (Carrier of the Year)' 상을 수상한 것이다.

현대상선 측은 "정확한 선박 스케줄, 화물 수송

시간 준수, 선진화된 전자상거래(EDI) 시스템, 대 고객 서비스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을 만큼 서비스의 수준이 탁월해 이번에 수상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현대상선은 타깃사의 컨테이너 물량 중 3만TEU를 수송했으며, 올해 수송량은 3만 4,400TEU로 약 14%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최우수 선사로 선정됨으로써 향후 이 회사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대상선은 미국 베스트바이사로부터 4년 연속 최우수 파트너, 일본 소니로부터 2년 연속 최우수 선사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수송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홍아해운

중국 연운항시와 협력논의

TCR의 기점이자 대련, 천진, 닝보와 함께 중국의 4대 심수항만의 하나인 중국 강소성 연운항의 연운항시 부시장일행이 5월25일 오후 홍아해운의 문정동 본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시염 연운항시 부시장 외 6명의 시관계자와 함께 연운항 항만집단 유한공사의 진광평 부총재 및 연운항중한류도유한공사 관계자 그리고 연운항훼리 관계자 등 6명이 배석했다.

방문단은 홍아해운 이윤재 회장과 만나 약 1시간여 동안 연운항시의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이윤재 회장은 향후 물동량과 승객 증가에 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선박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시염 부시장은 현재 연운항에 투자하는 한국 외자 기업은 40여개 정도이며 일본은 38개의 기업이 진출한 상태이나 산동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국 기업의 연운항 진출에 홍아해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홍아해운은 일찍이 연운항의 지리적, 경제적 잇점을 인식하고 지난 2004년 12월에 연운항시 항무국과 공동으로 인천항과 연운항을 연결하는 카페리 항로를 개설하여 한중간의 인적, 물적 교류에 이바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운항시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사이버로지텍

선박검사기술협회 KMS 구축

해운항만물류 IT전문기업 사이버로지텍(www.cyberlogitec.com, 대표 김종태)이 선박검사기술협회와 2004년 신정보화체계 프로젝트 구축에 이어 지식경영 기반 조성 및 보유지식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지식관리시스템(KMS)의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이버로지텍이 금번 수주하여 구축 예정인 정보시스템은 선박검사기술협회의 핵심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각 개인별, 조직별로 창출·획득한 노하우와 고급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며, 2004년 기구축된 모바일선박검사시스템과도 호환이 가능하게 하여 현장업무의 결과 및 연계되는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